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달 되시고, 성심의 은총이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 다음 주일은 본당 주보성인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불굴의 용기와 굳은 믿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예비자 교리 개강 안내**
 - 교리기간: 7/3-8/15 (매주 금, 토 저녁 6:30)
 - 신청방법: 주일 미사 후 신청서 배부
 - 담당자: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
-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첫영성체: 8/23 일 주일 미사 중
 - 부모 첫모임: 오늘 미사 후 성당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7월 11일(토) 저녁 7시
 - 장소: 박알비노 형제님 댁 (614)873-2018
8190 Shannon Glen Blvd. Dublin, OH

- ◆ **친교 준비 봉사자**
 - 6월 28일: 성모회 7월 5일: 성모회
- ◆ **6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io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2,15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80.00
교 무 금	\$1,587.00
감 사 헌 금	\$300.00
BAA	\$600.00

- **교무금:** 김영숙 문창민 고상식 김영천 오은총 서경환 신현태 이도근 임인홍 이호근 김상욱 최준표
- **감사헌금:** 김소영
- **BAA:** 서태수 최준표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June 28, 2009



<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

16세기, 템페라, 아타나시우스 경당, 아토스산, 그리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지혜서 1,13-15; 2,23-24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 2서 8,7.9.13-15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들을 채워 주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5,21-43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142단 1명	21,509단 14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42단 1명	2/22/04 -6/21/09 (278주)

☞ 총누계: 215,632단 12,77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6월28일	7월5일
해설자	고상식	안유신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25 ♪ 봉헌: 340
 ♪ 성체: 197 188 ♪ 파견: 1

생명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 사목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복음의 제목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입니다. 곧 주님의 치유기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혈하는 부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았습니다. 여러 방면의 의사는 물론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걸 사용했고 저걸로 나왔다고 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약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좌절뿐이었겠지요. 병은 병대로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어떤 재산도 남지 않은 그녀는 혼자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병까지 있는 날 주님은 만나 주실까? 아니면 난 그분을 만날 자격도 없어.’ 그러나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었고 주님은 꼭 낫게 해주실 수 있으리란 믿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생각에 뒤에서 옷을 잡았습니다. 단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주님께서 찾으셨고 부인은 앞드려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라고 하십니다.

반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아픈 딸을 위해 먼저 예수님께 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물론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아납니다.

오늘 복음에선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 병이 낫기를 바란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에 와서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님의 축복까지 받게된 사건과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 죽은 딸을 살려 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영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자 하혈하는 여인과 야이로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재산이나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도망치고 싶은 모습, 죽고 싶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 살려 주십시오”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인내의 한 주간이길 기도합니다.